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규민의 일상생활

오늘은 마지막 휴일 일요일이다. 황금 같은 일요일에 거의 한 것이 없다.  
 그래도. 가족끼리 만든 추억이 있다. 강아지와 산책을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을 먹고, 강아지와 산책을 나갔다.  
 우리집 강아지 쿠키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인지가 신나하는 표정이었다.  
 쿠키랑 나는 1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다. 강아지의  
 발을 씻기는 것도 일이다. 무사히, 강아지 발을 씻기고, 내방으로 들어가,  
 다이어리를 썼다. 다이어리의 내용은 얼마 전에 수학여행을 갔다온 것  
 을 썼다.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와서 그런지 쉽  
 게 잊혀지지는 않았다. 다이어리 정리를 하고, 점심으로 옥수수롤 해  
 먹었다. 근데, 문제는 옥수수가 맛 없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컴퓨터  
 를 키고, 우리반 친구들이랑 하는 카페에 들어가서 채팅도 하고 게시  
 글도 읽어 보았다. 이런 것도 쓰면서 읽어보니, 친구들과 친해진 것 같다.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짜장밥이었다. 안에 들어  
 있는 새우와 고기를 조금 떼어서 쿠키한테 주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단원을 복습하고 예습도 해 놓았다. 이렇게 나의 하루는 끝났다.  
 황금 같은 일요일에 한 것은 별로 없지만, 가족들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하루였다.